

전문가 코칭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김재은 [ (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

### Q1. 윤리 경영을 실천함에 있어서 모니터링의 역할은 무엇이며,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모든 기업의 윤리경영 정책과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윤리적 기업문화 조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윤리적 의사결정과 사건·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사전에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경영 모니터링』은 우리 회사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윤리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가, 혹은 비윤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이를 얼마나 성숙하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알아보는 윤리경영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윤리경영 모니터링은 기관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평가모델을 활용하거나 제3자 평가제도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내 윤리경영 선두기업의 경우 독자 개발한 윤리경영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 취약점을 발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윤리수준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니터링 제도는 비전, 전략, 조직, 인사제도 등 전반적 회사기능별로 윤리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윤리적 기업문화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동시에 회사의 윤리경영 수준이 '절대적 우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 제3자에서 측정하는 윤리경영 평가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SM) 등이 대표적 외부평가제도입니다. 제3자 평가는 우리 회사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동종업계 혹은 경쟁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Q2.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더라도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 외에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윤리경영 제도를 운영한다고 모든 윤리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윤리적 자생력 혹은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의 통합작업이 중요합니다. 즉, 회사의 가치와 일하는 방식이

윤리기준과 연동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우선 기업이 운영 중인 윤리경영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에 적합한 최신 제도인지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낙후된 윤리경영 시스템은 임직원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 확산할 뿐입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 기술, 정보보호, 글로벌 반부패 규정 등 변화요소를 고려하여 윤리경영 제도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정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윤리적 기준이 회사의 모든 제도와 기능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비전, 전략, 조직, 인사제도 등 사내제도 전반에서 비윤리적 행동이 발생가능한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윤리경영 제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종별 사례

##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 에너지 업계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석탄, 석유, 원자력, 전력, 가스 산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윤리경영 이슈는 발전 연료 사용 및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이슈, 다수의 협력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비윤리적인 거래' 이슈 등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해졌고, '산업 공생'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산업의 주요 이슈인 상생경영, 안전경영, 친환경경영에 관하여 정부와 기업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 ◎ 이슈 1. 지속가능한 산업공생

에너지 산업은 1차 에너지 자원을 탐사·개발한 후 이를 2차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통칭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출처: 두산백과사전). 에너지 산업은 엔지니어링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원자력, 화력, 수력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설계, 조달, 건설, 발전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기술집약적이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기술과 부품, 수많은 인력이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 심사와 임직원의 청렴 의식이 중요하다.

#### [사례] A기업 협력업체 납품 비리 사건

2013년 A기업과 협력업체가 조직적으로 모의하여 품질기준 미달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수년 이상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여파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협력업체만의 조작이 아닌 A기업 직원, 승인기관 직원까지 총 19명이 연루되었던 대형 뇌물 비리 사건이다. 납품 비리 적발 이후 품질 미달 부품의 정비 및 교체과정으로 인해 해당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건설 중이던 플랜트는 공사가 연기되었다. 협력업체 고문과 대표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형의 처벌이 가해졌고 A기업 직원과 승인기관 직원을 포함한 총 17명에는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다. 법정에서 인정된 총 피해금액은 9조 9,500억 원으로 국가차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

\*출처: 위키백과사전

### [사례]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B기업은 '찾아가는 구매상담회'라는 제도를 통해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투명하게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또한,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절하하여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배려하였다. 이 기업은 또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하여 매출 향상에 기여하였고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여 불법 하도급 근절을 달성하였다.

### ◎ 이슈 2.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우리나라의 2014년 산업 재해율은 0.53%로 전년 동기 대비 0.06% 감소한 비율이지만 업종 구분에서 에너지 산업이 포함된 건설업의 재해 사망률이 43.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사고 재해자가 전년 대비 43명 증가하였다. 한편 재난·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안전경영을 위한 사후 대처도 중요하다. 이에 에너지 산업의 선진 기업은 구체적인 안전경영 목표를 설정한 후 현장조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안전성 유지를 중점으로 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 [사례] 21세기 최악의 재앙,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지진으로 인해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한 21세기 가장 끔찍한 참사로 기록되며 그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사고의 원인은 지진 해일로 인한 원전 손상으로 냉각수 유실로 원자로 내부가 급격히 과열되어 보호막이 녹아내린 멜팅다운(노심용해) 현상 때문이다. 제1원자로 1호기의 고장으로 2호기의 격납용기(원자로가 들어 있는 차폐 공간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원자로를 보호하고 유사시 방사능 물질을 가두는 공간)가 손상을 입어 견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로의 냉각시스템을 멈춘 직후 원전 폐기를 감수하고 바닷물을 초기에 투입해야 하는 안전 방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대형 참사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인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안전경영의 부재로 대표되는 최악의 사례이다.

\*출처: 위키백과사전

### ◎ 이슈 3. 정부와 기업의 환경적 노력

'에너지 기본법'을 시작으로 정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전환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환경경영 실천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2012년 기준)의 60.6%를 차지하는 화력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 이유는 타 발전 방식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운용 방식이라는 장점 뒤에 대기 오염이라

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화력 발전소는 설비와 시스템, 운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례] 친환경 에너지타운 정책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정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주민소득 증대, 님비현상 완화'이다.

시범 모델로 홍천의 바이오 가스, 퇴비 생산시설 설치와 광주의 대규모 태양광 설비, 진천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설비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타운은 기피·유휴시설에서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문화관광 연계 등을 통해 주민수익을 향상하여 환경-에너지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이다.

\*출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40>, 체제용 기자

### [사례]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한 친환경 경영

2014년 기후변화경쟁력 우수기업인 E 발전소는 저탄소 녹색경영을 선도하며 녹색 에너지를 위해 4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이다. E 기업은 대기, 수질, 자원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중 환경감시 시스템이 독보적이다. Clean SYS라는 첨단 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내 환경감시시스템과 연동하여 굴뚝배출정보,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 현황을 24시간 상시 감시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수집 저장하고 관리하여 최소한의 대기오염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비산먼지와 소음감시를 위해 5분 감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 ◎ 결어

지난 몇 년간 에너지 산업은 일부 기업의 하도급 업체와 불합리한 계약, 유명무실한 안전 방침, 안일한 환경 관리와 같은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딛고 협력회사와 상생하는 파트너십, 안전경영, 친환경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 \*참고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구조변화와 전력산업의 대응방안, 강대혁  
산업별 기업윤리경영모델, 권익위  
2014.12 산업재해현황, 안전보건공단  
위키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동서발전 홈페이지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40>, 체제용 기자

<http://blog.naver.com/mesns/220261822941>

동향&소식

## 최근 윤리경영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하도급 업체 보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보고 의무와 신규 건설업자의 윤리교육 이행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된 법령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발주자(원수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6개월 이하의 신규 건설업자는 의무적으로 8시간의 윤리교육을 받아야한다.

출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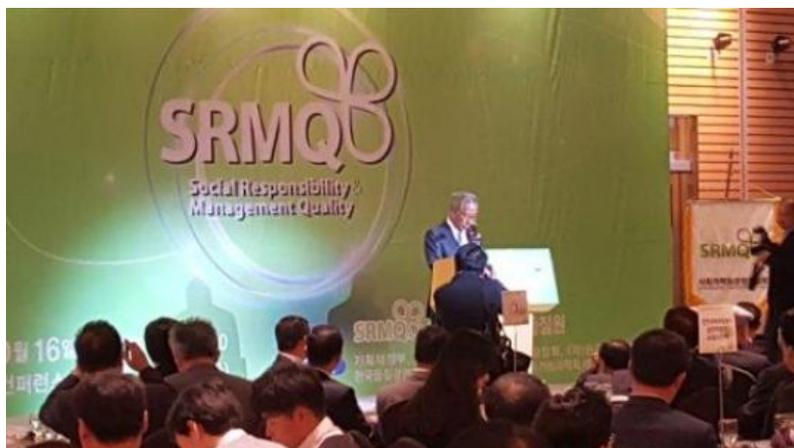
####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발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와 토마토 CSR 연구소가 10월 20일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결과, 총 115개 공공기관 중 5개 기업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공기업 I(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부문에는 한국공항공사가 752.03점(만점 1000점)으로 1등을 수상하였고, '공기업 II(특정 분야 산업에 대한 진흥)' 부문에는 한국동서발전(707.30점),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726.82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부문은 한국국토정보공사(735.47점), '준정부기관 소규모 강소형' 부문은 한국예탁결제원(742.96점)이 1등을 수상했다. 「2015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는 사회공공의 복지 향상이란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평가지표는 글로벌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할 때 기준으로 삼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따른 지표들로 구성되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가이드라인(ISO 26000)'이 반영되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9268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92995>

####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5 시상식 개최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김철수 회장)이 10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5'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사회적책임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품질대상은 세방전지(주) △최고경영자대상은 흥진HJC 흥완기 회장 △경영품질 부문대상은 KD파워, 동아정밀공업(주), 삼화콘덴서, 마스터자동차(주) △한국품질재단 글로벌시스템 부문대상은 오텍, 대광소결금속, 유양산전, 농업법인 새들만이 각각 수상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92682>

## 해외 윤리경영 동향

### 영국의 2015 현대판 노예법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s)는 전 세계 대략 2억 명의 사람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고, 매년 1조 5억 원의 불법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투명하지 않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영국에서 2015년 현대판 노예법(2015 Modern Slavery Act)이 발효되었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법은 위반 시 최고 형량을 14년에서 종신형으로 증가시켰으며, 범법자의 재산을 철저히 몰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법의 시행을 위하여 독립적인 반노예위원(The Independent Anti-Slavery Commissioner)을 설치하여 관련된 법이 잘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현대판 노예제를 예방하여 피해자 보호, 범죄자 기소, 국내외 협력, 정보 수집을 위한 기구로 역할 하도록 하였다.

출처: Ethical Corporation, Sep, 2015

<http://www.apil.or.kr/1728>

###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 세계 의사회 윤리 규정 채택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월 14일~17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총회 (대표단: 강청희 상근부회장, 신동천 WMA 재정기획위원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 통과 및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의사회에서 동 안건이 의사의 윤리적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며 세계 의료 윤리 규정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에 따라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이를 발의해 준 의협의 노력을 높이 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WMA 신규 정책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189843>

### UN·세계은행, 무이자방식 세계난민기금 조성한다

UN과 세계은행이 심각해지는 난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무이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금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최근의 난민사태에 대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이 UN 및 다른 주요 국제금융기관과 긴밀한 파

트너로서 주류 역할을 이행하고 분쟁 국가들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도 난민사태에 대처하려면 한 국가나 국제기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두 기관을 이끄는 반 총장과 김 총재는 무이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금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이슬람개발은행이 무이자로 운영하는 이슬람채권 발행 등을 통해 각국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된 재원은 난민사태에 대처하는 국가들에 초저금리 또는 무이자 방식으로 대출된다. 이를 위해 유엔과 세계은행은 자금 조달 실무팀을 구성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출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193>

### "영국 FTSE 100 대 기업: Targeting Carbon"

영국의 FTSE 100대(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시가총액 순으로 지수화한 것) 기업 중 74개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55개 기업은 중대성 평가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체크하고 이를 평가하는 틀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간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그린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린 에너지 사용량은 2012년 34%에서 2015년 40%로 증가하였다.

출처: Ethical Corporation, Oct, 2015

행사 이모저모

## 행사 브리핑

### ◎ 행사 이모저모

#### 제6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UN 반부패협약\*과 관련, 당사국간 이행 현황 공유와 점검체계 개선을 위해 2015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 6차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주관: UN 마약범죄사무소, 러시아 정부). 이번 총회에서는 177개 당사국 및 비비준국 대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약 1,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성보)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주요 협약 이행 진전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 UN 반부패협약('03.10월) : 산재해 있는 반부패 국제협약을 UN 총회가 통합하여 만든 최초의 국제규범  
(한국은 '08.2월 비준)

## 2015 제7차 세계윤리경영포럼

10월 27일부터 2일간 잠실 롯데호텔에서 '윤리경영: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2015 제7차 세계윤리경영(한국)포럼이 개최되었다. 2015 제7차 세계윤리경영포럼은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성공적인 윤리경영 사례를 소개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서 팡타이그룹 마오중천 대표는 지도자가 올바르면 경영 관리 역시 올바를 것이라고 말하며 리더의 윤리 자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춘추항공 왕정화 대표는 도(道)를 기반으로 한 청렴 경영 사례를 통해 윤리경영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 7가지의 다양한 주제로 윤리경영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논의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윤리경영 패러다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 ◎ 국내외 행사

### 제2차 CSR 서울 이니셔티브 국제 컨퍼런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단기적인 CSR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경영 사업발전에 접목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책을 고찰할 예정

- 주최 : CSR Seoul Initiative
- 일시 : 2015년 11월 12일 (목)
- 장소 : 여의도 썬스튼 호텔

출처: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6903>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우리 기업의 대응' 포럼

9월 25~27일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유엔 민간부문포럼 참가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의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시: 2015년 11월 3일 09:30~12: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kr/wp/?mod=document&uid=1037&page\\_id=2386](http://www.unglobalcompact.kr/wp/?mod=document&uid=1037&page_id=2386)

### The 9th Annual CR reporting and Communications Summit 201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하는 컨퍼런스

- 주최: Ethical Corporation
- 일시: 2015년 11월 10일 ~ 11일
- 장소: London

출처: <http://www.justmeans.com/csr-events?page=1>

글로벌 리포트

## 글로벌 리포트

### 중국의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윤리성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멜라닌 분유 파동(2008), 다국적 제약기업 GSK 부패 스캔들(2013, 영국 제약회사 GSK가 중국시장에서 가짜 계약서와 가짜 영수증으로 현금을 만들어 중국 공산당 관리와 의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비리 사건), '자살 공장'이라 불리는 폭스콘 중국 공장 노동 실태(2010) 등 일부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으로 중국의 국제적인 명성이 크게 실추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은 윤리경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2010년 중국 정부는 윤리경영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중국 교육부와 대학을 중심으로 '청렴 커리큘럼'과 '청렴 약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한 기업 문화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중국의 윤리경영 제도 및 정책과 정부 차원의 부패 척결 방안이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 중국 대학의 윤리경영 교육 및 워크숍

중국은 '청렴 커리큘럼'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전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문화에 깊숙이 자리한 관시(이민족의 침입이 많던 중국 문화의 특성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생긴 관습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것을 뜻함)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 기업문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3개 대학교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윤리경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출범한 칭화대학교 CIEN(the China Integrity Education Network)에서 진행하는 'Integrity Actions China project'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베이징대학교 'BUAA, Beihang', 후난대학교 'Anti-Corruption Research Centre'가 있다. 기업인들이 윤리경영을 약속하는 서약식인 '청렴 약속'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학교에서 워크숍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의 TOP 5 건설사, 제29회 베이징 올림픽(2008) 위원회, Three Gorges Project(중국 댐 건설, 2008) 위원회가 참여하였다.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렴 커리큘럼'과 '청렴 약속'은 교육 차원의 윤리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세계 베스트 청렴 사례를 중국 사회 시스템에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중국의 윤리 기관 활동과 기업 사례

중국은 6개 정부부처 윤리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윤리 관련 정부부처>

부 처 명	활 동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수출기업의 CSR성과에 대한 스크리닝이나 측정, 그리고 관세와 같은 경제지표 관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석유매장량, 지속가능발전 활동, 사회적 발전에 대한 경제적 구조조정이나 경영측면에서 관리
사회보장연금위원회	노동력, 노사관계 조정, 사회보험경영 관련 다양한 활동, 노동과 사회복지의 법적 측면을 포괄하는 국가 노동 및 사회지원프로그램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효과적 감독체계나 책무성 제도를 마련하는 규제 또는 규칙을 세우거나 국영기업의 개혁을 지도
산업안전관리국	전국의 작업 안전을 감시 및 관리(작업 안전 허가 및 관리, 산업의 작업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 배포 등)
국가환경보호국	주요 경제적, 기술적 정책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정책, 법, 규제를 만들

\*출처: Carolin Welzel etc (2007)

< 중국 기업 윤리경영 사례 - COSCO >

중국 기업 COSCO(China Ocean Shipping Company)는 중국 최대 규모의 해운회사이며 2010년 중국의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이다.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COSCO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 플랫폼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COSCO Information Platform은 UN Global Compact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알고리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여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중국 감사제도 SASAC 이행

COSCO 그룹은 중국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인 SASAC를 준수하며 꾸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COSCO 그룹이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세우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 중국 정부, 부패와의 전쟁 선포!

중국 정부는 2010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5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윤리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중국의 전통문화인 관시를 이용한 횡령, 뇌물 등 기업과 관리들의 금전적인 비리를 해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반부패 가이드선스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22개 대학과 전 세계 19,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마련하여 부패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국가 차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 시장의 개방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PRC(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정부) 범죄 법'을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인과 외국인 경영진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PRC 범죄 법은 영국 'Bribery Act'와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를 벤치마킹하여 중국 특유의 산업 시스템(경제

개혁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였지만 공산당 집권 중심의 정부 체계가 공존하는 것)에 적합하도록 마련한 법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부패가 만연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경영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14년 중국의 부패척결 동향 6가지>

1. 고위관리자들의 비리,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지역 검찰기관에서 입건한 탐오, 뇌물수수 범죄사건은 총 2만 7,235건으로 3만 5,663명이 연루되었고 법원에서 판결 받은 1만 3천여 명 중 99.8%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
2. 정기적인 순시를 통한 감시제도 강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린 후 여러 차례 순시를 수행
3. 퇴직자도 예외 없는 부패 조사: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용강,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전 부주석 등 퇴직한 고위관리를 조사
4. 부패 관련 해외도피자 검거: 60개국에서 총 428명의 도피범 검거
5. 권력범위를 명확히 확정함: 권력남용을 확실하게 규제하는 '권력명세서'를 통해 제도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예방
6. 반부패 제보 사이트 설치: 2014년 12월 9일에 중앙국가기관 당 조직과 당원의 규율 위반 제보를 접수하는 중앙 국가 기관 제보사이트 오픈

#### ◎ CSR Action Plan

중국은 2006년도에 기업 CSR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회사법에 CSR을 명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C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지 않다. 중국 CSR의 특징은 외국 기업 CSR에 대한 기대치가 중국 기업보다 높고, 기대치가 높은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2010년 중국사회과학원이 1,000명의 베이징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의 47%가 외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KOTRA) 그러나 외국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CSR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광저우 까르푸와 충칭시 월마트의 '저가표시, 고가판매' 행위가 적발되면서 중국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불법소득을 몰수당하고, 벌금 부과를 받은 것은 물론,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은 사례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 ◎ 결어

앞서 본바와 같이 중국은 청렴 커리큘럼, 청렴 약속 등을 통해 중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윤리적 행태와 부패를 척결하는데 주력하고, PRC 범죄 법을 제정해 중국 시장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을 감시하여 횡령, 뇌물, 비리를 적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정부기관과 글로벌 기업에 국한된 부패척결 법안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산업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사회전반의 윤리경영 및 청렴수준을 높이고자 각고의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층 더 높아진 중국의 윤리경영이 기대된다.

#### \*참고

기업 윤리경영 지원 활성화 방안, 권익위  
 '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KOTRA  
 COSCO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3

최근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부패스캔들, 관주영

'Doing Business in China: An overview of ethical aspects', by JUDITH IRWIM

'Integrity Action's role in China-based integrity education', CHINA POLICY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35820/prc-criminal-law-to-tackle-bribery-of-foreign-officials>

[https://en.wikipedia.org/wiki/Anti-corruption\\_campaign\\_in\\_China#Background](https://en.wikipedia.org/wiki/Anti-corruption_campaign_in_China#Background)

[http://www.transparency.org/news/feature/mobilising\\_chinas\\_future\\_leaders\\_against\\_corruption](http://www.transparency.org/news/feature/mobilising_chinas_future_leaders_against_corruption)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335>

<http://blog.naver.com/hhmszu/220223472678>

윤리경영 스테디.

## 윤리경영 스테디

### 윤리경영 모니터링 방법과 실천 톨

윤리경영 정책과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실천하는 기업이라도 부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의 경우 명문화된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비윤리적인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모니터링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부패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윤리경영 모니터링의 평가 방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톨에 대해 알아보자.

#### ◎ 윤리경영 모니터링 방법

윤리경영 모니터링은 기업의 부정부패 감시를 통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윤리경영 정책의 시행과정을 평가하는 체계이다. 윤리경영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방지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부패방지 노력을 독려할 수 있다. 특히, 부패방지 성과측정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추상적인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 모니터링은 윤리경영 방침과 조직 및 시스템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윤리경영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자가진단, 활동실적평가, 상벌제도'가 있다.

#### 윤리경영 모니터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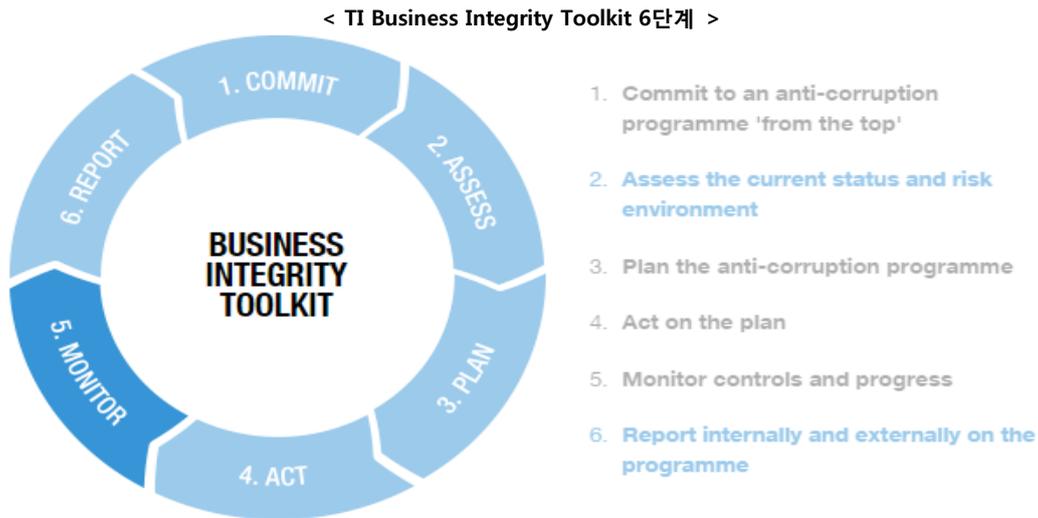
- 자가진단: 자사의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기업 내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다. 기업의 현재 위치 및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활동실적평가: 기업에서는 윤리경영 활동실적에 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의 성과관리와 통합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제도 등 인프라 구축현황과 세부 실행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운영성과 등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이 뒷받침된다.
- 상벌제도: 윤리경영 정착과 기업의 위험관리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서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이나 업무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상제도는 활발히 실행하고 있으나,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어 '신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 ◎ 윤리경영 모니터링을 위한 톨

**Business Integrity Toolkit(국제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개발한 Business Integrity Toolkit은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 킷으로 윤리경영 전 과정을 파악하여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또한, 내부와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내부와 이해관계자 전체를 통합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Business Integrity Toolkit 6단계는 [약속->평가->계획->실행->모니터링->보고] 순서대로 진행된다.



**Business Integrity Monitoring Toolkit (국제투명성기구)**

-기업 반부패 프로그램 인증 프레임워크

: 기업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윤리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인증함  
독립적인 보증을 위해 ISAE 3000(국제 회계 보증),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부패 순위), PACI Principles(이해관계자 부패지수) 등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자가 평가 툴(SET: The Self-Evaluation Tool)

: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ing Bribery(2009)에 의거한 260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임직원의 반부패 인식을 평가함

**FKI-BEX (Business Ethics Index, 전경련)**

이론적인 지표보다 실질적인 지표의 필요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한 툴이다. 2006년 전경련에서 발간한 '글로벌 윤리경영 프레임워크'와 국내외 윤리경영 관련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7대 진단 영역으로 세분화 하였고, 윤리경영 시스템,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윤리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KPI(핵심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정도와 인식도를 설문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성공적인 윤리경영 모니터링 기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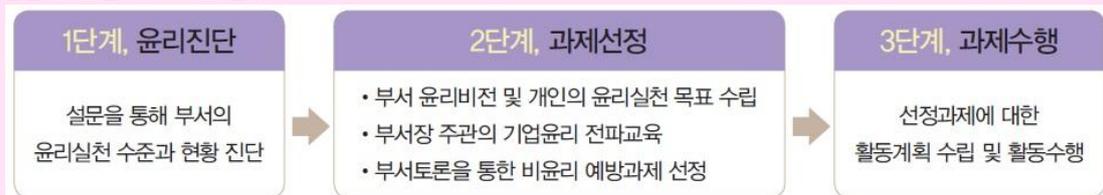
체계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성공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은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과 더불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윤리 취약 분야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A 기업

- 단계별 모니터링 시스템: 부패유발요인 차단
- 청렴 옴부즈만
- 부패 취약분야 대상 모니터링 강화: 특정 부패행위 발생여부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 모니터링 설문은 투명성, 책임성, 부패인식, 부패경험 등 4가지 부분으로 구성
-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 전담반 운영: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및 실행, 부패위험 예방활동,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평가

B 기업

-기업윤리 실천 프로그램 운영



- '기업윤리 자가 진단표'를 통한 윤리적 딜레마 해결: 윤리 체크리스트를 임직원의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여 생활에서의 윤리 실천
-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출처: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 2013, 권익위 전경련

◎ 결어

윤리경영 모니터링은 추상적 개념인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구체적인 프로세스이다. 기업 윤리를 실천하고 부패와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윤리경영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업마다 상이한 문화와 시스템에 맞는 윤리경영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2012, 권익위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 2013, 권익위 전경련  
 윤리경영 자율 진단표, 전경련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corporatecomplianceinsights.com/using-metrics-to-measure-compliance-performance/>

윤리캘린더

## 윤리 캘린더

이번 호 윤리 캘린더는 UN이 발표한 신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2030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5년 8월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2030'은 전 지구적인 개발 의제로서 193개 UN 회원국 정부 대표들과 세계 도처의 시민단체들이 연구, 협의, 협상을 통해 개발해온 목표 세트이다. SDGs는 빈곤퇴치라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기초와 함께 포용성(inclusive), 보편성(universality), 평등(equality) 등 새로운 기초를 강조하고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의 3대 분야를 포괄하는 것을 필두로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SDGs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전 지구적인 개발의제로서 국가 간 합의와 주요 그룹의 참여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 UN SDGs 2030 개요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2030은 2년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채택된 17개국의 공통적인 지향 의제(Goals)와 169개의 이행 목표(targets)로 구성된 아젠다이며 향후 15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환경, 사람과 관련된 17개의 의제를 명시하고 있다.

#### <UN SDGs 2030 17가지 목표>



1. no poverty 빈곤근절
2. zero hunger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3. good health and well-being 전 인류의 건강한 생활과 웰빙 보장
4. quality education 교육의 질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 촉진
5. gender equality 양성 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강화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식수 확보와 위생관리 보장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모두를 위한 일자리 촉진
9. industry, innovation, infrastructure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 필요성 충족
10. reduced inequalities 불평등 감소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활환경 조성
12. responsible consumption, production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3. climate action 기후변화 대응
14. life below water 해양 생태계 보존
15. life on land 육상 생태계 보존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평화롭고 통합적인 사회 달성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지구적 규범과 파트너십 강화

\*출처: UNDP (유엔개발계획)

UN SDGs 2030 17개 의제는 '경제 성장', '평등 지향성', '지속가능한 체계'의 3가지 분류 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 문제, 깨끗한 식수 확보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며, 8가지(1,2,3,4,6,7,8,9번) 목표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평화로운 지구를 강조하며,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인권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타파하는 평등 지향적인 목표는 3가지(5,10,16번)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체계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정책과 행동 방침에 대한 안건은 4가지(13,14,15,17번)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며 SDGs 2030 의제에서 새로 추가된 목표이기도 하다.

#### <UN SDGs 실현을 위한 6가지 필수요소>

- 2014년 유엔개발계획(UNDP)는 성공적인 SDGs 2030을 위한 6가지 요소를 발표했다.

1. **Dignity(존엄):** 굶주림 종식과 불평등에 대한 저항
2. **Prosperity(번영):** 포괄적이고 변화하는 경제를 강화
3. **Justice(정의):**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와 이를 실현할 강력한 제도 달성
4. **Partnership(파트너십):**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유대관계 촉진
5. **Planet(환경):**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생태계 보존
6. **People(사람):**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지식 보장

© UN SDGs 2030 특징 (MDGs 2015와 비교)

UN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가난 퇴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성장 관련 목표 세트가 주를 이뤘다. 이와 달리 SDGs 2030은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통해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가 이행해야 하며, "어느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집단적인 약속을 강조하며 경제와 환경을 고려하는 목표 세트가 특징이다.

<UN SDGs 2030과 MDGs 2015의 비교 분석>

1.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Universal)** 의제
2.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변혁적(Transformative)** 의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탈피하고 인류 공통의 목표를 지향
3. 소외, 취약 계층까지 고려하는 **포용적(Leave on one behind)** 의제: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강조
4. 구체적인 이행수단 및 **강력한 후속조치와 평가 시스템 확보**: 다양한 재정적(ODA, 공적 민간 재원), 비재정적(과학, 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등

구 분	MDGs (2001~2015)	SDGs (2016~2030)
구 성	8개 목표+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대 상	개도국	(보편성)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 야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분야	(변혁성)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
참 여	정부 중심	(포용성)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중심

\*출처: 외교부 블로그

◎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의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친 영향

UN이 SDGs 2030 의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돋보인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던 과거와 달리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SDGs 2030이 강조한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계약이 있을 경우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여 win-win 할 수 있는 방안(SDGs 2030 17번 목표인 Partnerships for the goals에 해당)을 모색하고 있으며 글로벌콤팩트의 보편적 원칙을 존중하면서 기업 시스템에 최적화된 지속가능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GRI 가이드라인과 같이 신뢰성 있는 체계를 통해 끊임없이 기업 내부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슈별 플랫폼과 산업별 이니셔티브에 더 깊이 참여하여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한국의 성공적인 SDGs 2030 달성을 위한 조건

최근 한국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 최적화된 SDGs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2015년 8월 9일 광주시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주요 안건은 '한국의 성공적인 SDGs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SDGs 실행 가이드라인>

1. **대통령 직속 SDGs 추진 위원회 설립:** 한국 정부의 무관심을 타파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제고하며 개선안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2. **대한민국만의 SDGs 재정립:**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한국 시스템을 고려한 목표 재정립
3. **개발자원 조성:** 지속가능목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개발자원을 민간, 정부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ODA(공적개발원조)가 비교우위를 갖고 수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자원 지원전략이 필요

## ◎ 결어

UN의 SDGs 2030은 앞으로 15년간 전 세계의 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프레임 워크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되며 산업계를 포함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는 SDGs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발자원을 조성해야하며 범정부적인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출처

UNDP(유엔개발계획)

UN SDSN 대표, 제프리삭스 교수

Building the Post-2015 Business Engagement Architecture, UNGC

2030 SDGs report, UNDP

Review of Targets for The SDGs, ICSU ISSU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87057>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361379>

외교부 블로그 <http://mofakr.blog.me/220437162882>

One Point Lesson

## One Point Lesson

**Q. 요즘 언론에서 청렴도 평가에 대한 소식이 종종 들리는데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A.**

청렴도 평가는 부패를 하나의 사회현상이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 부패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우선 개선영역과 취약업무를 파악하고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 활동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렴도 평가는 조사 대상을 구체화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 단위의 체계적인 부패진단 시스템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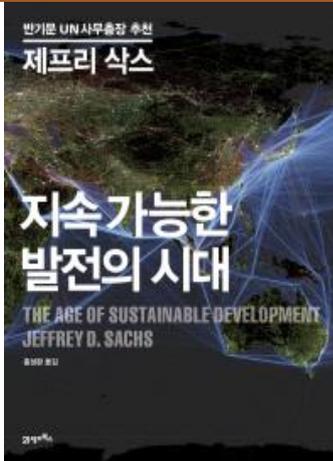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2013, 권익위

청렴도 향상 방안, 2014, 조달청

이달의 책

## 서적 리뷰

###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저자: 제프리 삭스  
출판: 21세기 북스  
출판일: 2015. 10. 16  
정가: 33,60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제프리삭스가 집필한 UN의 새로운 현안과 우리의 미래를 담은 공식도서이다. 제70차 UN 총회의 UN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집대성한 책이다. 제프리 삭스의 흔들림 없는 이론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책은 지구촌의 현 상황을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와 세밀한 통계,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미래 전망을 담았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에너지 혁명 2030 - 석유와 자동차 시대의 종말 전혀 새로운 에너지가 온다



저자: 토니 세바 (박영숙 옮김)  
출판: 교보문고  
출판일: 2015. 7. 30  
정가: 15,000

‘2030년, 석유 시대에서 태양광 시대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화석연료의 고갈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의 편리한 삶을 지탱해 줄 에너지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에너지 혁명 2030』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에너지 전문가 토니 세바가 앞으로 20년 동안 에너지와 교통산업의 발전을 예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의 에너지 판도를 뒤엎을 강력한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을 중심으로 기술과 제품의 구조, 비즈니스모델의 변화를 살펴본다. 저자는 태양광패널의 기술이 발달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가격도 저렴해지면, 태양광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전력산업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도 뒤흔들 것이라고 말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즐거운 윤리

**Yes 준법!**  
**Ok 윤리!**

선(善)플! 선(先)플!




우리 생활에 유익한 SNS! 임직원 상호간에 기본 예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KYOBO